

『페어리 여왕』 5권의 이시스: 브리토마트의 신화적 변용의 정치성*

이진아 (한국외대)

『페어리 여왕』(*The Faerie Queene*)은 근대 초기 영국을 40년 넘게 통치한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1)와 튜더(Tudor)왕조에 대한 서사적 찬양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혹은 비유적으로 상당부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독자들의 눈에는 절대 왕정의 최고 통치자인 여왕에 대한 스펜서의 무한한 찬양의 표현들은 때로 거북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¹⁾ 여왕과 관계된 찬양의 알레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페어리 여왕』에 자주 등장하는 찬사(encomium, praise)들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Elizabeth's arse-kissing poet Spenser”라는 표현에서 극단적으로 지적되듯이, 스펜서의 사회적 신분상승욕구에 기초한 아첨들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르네상스 수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의 찬양의 성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론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수사학 이론에 의하면, 수사학은 세 가지 종류, 즉 정치적 수사학(political

고리들 속에는 근대 초기 영국 사회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시인의 견해들이 깊이 침투해있다. 특히 정치적 덕목을 다루는 5권 「정의의 전설」(the Legend of Justice)에는 당시 영국 국내외의 주요 정치 상황들이 알레고리화 되어 있다. 때문에 스펜서의 문학적 상상력이 5권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했고 여왕에 대한 아첨은 작품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평이(Lewis 349) 5권에 대한 비평에서 지배적이던 시기가 있기도 했다. A. C 해밀튼(A. C. Hamilton)이 지적하듯이(Hamilton, Longman, 525), 1970년대 후반부터 5권에 대한 비평은 급진적으로 수정되기 시작했으며 5권의 알레고리의 복잡성도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5권에서 가장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는 에피소드들 중 하나는 아마도 이시스 신전(the Temple of Isis)을 중심으로 한 그 전후의 사건들, 특히 브리토마트(Britomart)가 여성의 정치적 통치권을 폐지하는 사건일 것이다. 메리(Mary)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 두 여왕의 지배를 50년 넘게 받아온 근대초기 영국에서 여성 통치는 찬반 논의가 뜨거웠던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는데,²⁾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찬양 서사시임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스펜서의 작품에서 여성 통치가 여왕이 될 여성인 브리토마트에 의해 공격으로

or deliberative rhetoric), 변론적 수사학(forensic rhetoric), 과시적 수사학(epideictic rhetoric)으로 나눌 수 있다(Aristotle I, iii), 『페어리 여왕』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찬사 혹은 비난의 주제를 다루는 과시적 수사학적 글쓰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스펜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Marx & Spenser,” *Spenser Encyclopedia* 457-58 참조.

- 2) 근대 초기 영국에서 여성 통치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찬성과 반대 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다. 가장 보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존 녹스(John Knox)의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rous Regiment of Women*(1558)에 의해 대표된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인 녹스는 주로 성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의존하여 가톨릭인 메리 튜더의 통치반대로 출발하여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후에도 여성 통치를 반대하였다. 여성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예외적인 경우의 여성 통치를 찬성하는데, 존 에일머(John Aylmer)의 *An Harborowe for Faithful and Trewe Subjectes*(1559)와 존 레슬리(John Leslie)의 *A Defence of the honour of Marie Queene of Scotande*(1569), 데이비스 챔버스(David Chambers)의 *Discours de la légitime succession des femmes*(1579) 등에 잘 나타나있다. 이들 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Jordan과 Levine 참조.

폐지되었다는 점은 특히 정치적으로 문제화될 여지가 있었다.³⁾

브리토마트는 『페어리 여왕』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여성 군주로서의 엘리자베스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인물로 3권 「정결의 전설」(the Legend of Chastity)의 남장한 여성수호기사로서 4권, 5권에 이르기까지 페어리 나라에서 종횡무진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브리토마트는 5권에서 정의로운 군주로서의 엘리자베스를 알레고리화하는 머실라(Mercila) 대신 중심 칸토 7 이시스 신전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이시스 신전에서 머문 후 브리토마트는 라디군드(Radigund)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어 여장(女裝)을 하고 살아가는 아트겔(Artegall)을 구하러 간다. 라디군드를 죽인 후 그녀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던 아마존 왕국의 질서를 “정의에 입각하여”(5.7.42.7) 남성지배/여성복종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브리토마트에 의한 여성권력의 폐지는 5권의 중심 칸토 7에서 일어난다는 점으로 보아 정의의 알레고리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 브리토마트의 여성 통치 폐지라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그녀가 5권의 알레고리의 중심 장소인 이시스 여신의 신전에서 이시스 여신의 모습으로 변모되고 자신의 결혼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는 꿈을 꾸 후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의 전후관계를 볼 때, 이시스의 신화적 의미는 브리토마트의 여성정치권의 폐지와 알레고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시스 여신의 신화의 정치적 의미들을 밝히고 브리토마트의 이시스 여신으로의 변모와 여성 통치 폐지와와의 관계들에

-
- 3) 5권이 당시 정치적 사건들의 알레고리를 많이 담고 있으므로 그 사건들과 관계있는 이들은 스펜서의 작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5권에서 두엡사(Duessa)의 처형은 스코트랜드의 여왕 메리의 처형에 대한 알레고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 메리의 아들인 스코트랜드의 제임스 6세(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됨.) 1596년 이 에피소드에 대해 불평하며 스펜서를 재판하여 처벌할 것을 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칸토에 대한 Hamilton의 주석과 주석에 참고된 글들 참조.
- 4) 명백히 여성군주의 찬양으로 가득 찬 듯한 『페어리 여왕』에서 여성의 권력을 공적으로 폐지한 스펜서의 여성 통치에 대한 모순된 태도는 당연히 여성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 학자들의 견해들은 대부분 여성 통치에 대한 스펜서의 태도의 모순성, 애매모호함에 대한 지적들이다. Roberts 187-207; Villeponteaux 209-25; Stump 401-21; Woods, “Women's Rule,” 140-58; Woods, *Gender*, 52-61; Bowman 509-28 등 참조.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당시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 중 하나이며 여성 통치 문제와 직결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 문제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것이다.

왜 스펜서는 브리토마트의 결혼의 비전에서 그녀를 이교도 여신인 이시스 여신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인가? 브리토마트와 이시스 여신과의 관계, 이시스와 오지리스 신화, 악어 등의 이야기들에 대한 출전과 그 알레고리적 의미들에 대해서는 간간히 연구가 되어 왔다(Buder 8-14; Hieatt, chapter 9; Aptekar, chapter 6; Nelson 115-31; Davies 25-26). 그런데 브리토마트의 여성권력 폐지와 이시스 여신 신화의 정치적 함축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제인 애틀커(Jane Aptekar)는 5권이 결혼에 있어 남녀관계를 정의의 중심이 되는 측면으로 간주하여 다루고 있다고 한 해석한 바 있다(Aptekar 97-98). 이 결혼 문제가 다른 덕이 아닌 정의라는 정치적인 덕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이유는 그 결혼이 바로 여성 군주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결혼 비전에서 브리토마트가 이시스로 변모하므로 이시스 신화의 정치적 함축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통치에 대한 스펜서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여성군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힘든 존재였으므로,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의 측근들이 여성군주로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좋은 이미지들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녀는 글로리아나(Gloriana), 벨피비(Belpheobe), 다이아나(Diana), 유딧(Judith), 드보라(Deborah), 신씨아(Cynthia) 등의 이름으로 불렸고 아마존 여왕 펜테실리에(Penthesilea)에 비유되었다. 아마존 여왕으로서의 엘리자베스는 다른 비유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데, 여왕의 군사적 용맹함을 강조하는 이미지로서 1588년 전후 스페인과의 전쟁 시에 특히 이 비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chleiner 173-180). 3권이 출판된 시기가 스페인과의 전쟁 직후인 1590년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 3권에 등장하는 아마존 여전사로서의 브리토마트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성 군주로서의 엘리자베스에 대한 찬양의 의

미를 크게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브리토마트의 아마존 여성다운 용맹함과 덕성은 통치 군주로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지만, 그녀에 대한 스펜서의 찬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리토마트의 궁극적 역할은 통치 군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펜서는 3권 칸토 4의 도입부에서 고전 시인들이 노래했던 여성의 용맹한 행동과 업적들과 여성 영웅들에 대해 시인들이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고 중세 특유의 ‘Uni sunt’의 회고조의 한탄을 토로한다(3.4.1). 곧이어 스펜서는 고전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 영웅들의 업적을 열거하면서(4.2) 그들보다 더 위대한 브리토마트에 대해 찬양한다.

허나 이들과 권력을 가진 다른 모든 이들도,
 고귀한 브리토마트와 견줄 수 없네,
 그녀의 모든 훌륭한 공적들이 보여주는
 위대한 용맹의 영광 뿐 아니라,
 순수한 정결과 뛰어난 덕성의 면에서.
 참으로 명망 높은 그 혈통으로부터 가지들이 뻗어,
 근자에 너무도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오, 여왕이시여, 내 노래의 소재이신 당신이 꽃피었으니,
 바로 이 숙녀에게서 여왕님 가계의 기원을 찾았네.

Yet these, and all that else had puissance,
 Cannot with noble Britomart compare,
 Aswell for glory of great valiaunce,
 As for pure chastitie and vertue rare,
 That all her goodly deeds do well declare.
 Well worthy stock, from which the branches sprong,
 That in late yeares so faire a blossome bare,
 As thee, ô Queene, the matter of my song,
 Whose lignage from this Lady I deriue along. (3.4.3)⁵⁾

5)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A. C. Hamilton, ed., *Spenser: The Faerie Queene* (London:

3권에서 마술사 멀린(Merlin)은 트로이왕가로부터 유래한 영국 왕조의 어머니로서의 브리토마트의 역할을 예언한 바 있다(3.3.22-24). 브리토마트가 한 눈에 사랑에 빠진 아트걸을 찾아 기사로 남장하고 모험을 떠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섭리”(3.3.24)에 의한 것으로 왕조의 어머니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 여성 전사로서 남성 못지않은 무용을 발휘하는 브리토마트에게 있어서 위대한 용맹함과 정결한 덕성 보다 마지막에 언급된 어머니로서의 명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브리토마트의 결혼 없이는 근대초기 영국의 정체성의 주축인 튜더왕조가 생겨날 수 없으며 또 이 작품의 찬양의 대상인 엘리자베스여왕의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은 남성/여성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몰아가며 특히 남성 신하들에게 공포감과 경멸감을 동시에 불어넣을 수 있는 아마존 여전사의 이미지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Schleiner 179). 스펜서가 아마존 여성 브리토마트를 궁극적으로 왕조의 어머니로 설정한 것도 여왕의 그러한 의도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⁶⁾

브리토마트의 결혼 문제는 곧 여왕 엘리자베스의 결혼 문제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의 결혼과 후사 문제는 그녀의 즉위 초부터 첨예한 정치적 관심사였다. 튜더 왕조에 이르러 처음 영국사에 등장한 여성 군주의 존재는 영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불러일으켰고, 메리 여왕의 결혼은 군주로서의 그녀에게 그다지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메리와 비교할 때 엘리자베스의 독신 선택은 영국의 통치권이 가톨릭 신자나 외국인에게 양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였지만, 여왕이 낳은 왕권 후계자가 없다는 점에서 영국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의 원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스페인의 필립 2세, 스웨덴의 에릭 14세, 프랑스의 찰스 4세와 그의 형제들, 오스트리아의 대공 등 많은 유럽 군주들로부터 청혼을 받았고, 영국 의회는 여러 번(1559년, 1563년, 1566년, 1576년

Pearson Education, 2001)에서 하였다.

6) 엘리자베스 여왕을 찬양하기 위한 여러 이미지들 중 여왕의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모성적인 염려”(motherly carefulness)가 풍부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도 강조되었다. “The Common's Petition to the Queen at Whitehall, January 28, 1563”(Elizabeth 72-77, 특히 75) 참조.

등)에 걸쳐 여왕에게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여왕은 집권 초기부터 결혼에 대한 의회의 탄원에 대해 행복하게 독신의 삶을 선택한⁷⁾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처녀 여왕으로 그 이름이 묘비명에 새겨질 것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Queen Elizabeth's First Speech Before Parliament, February 10, 1559, version 1,” Elizabeth 56-58). 그녀는 일반 여성은 당연히 결혼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과 같은 여성 군주에게 있어서 결혼은 적합하지 않으며,⁸⁾ 이미 영국이라는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천명하며⁹⁾ 40년 넘게 영국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도 후계자를 지목하는 일을 미루었다. 이렇게 왕권 계승자가 없는 상황이 가져올 영국의 정치적 혼돈은 영국민 모두가 우려한 상황이었으며, 3권에서부터 예언되는 왕조의 어머니로서의 브리토마트에 대한 비전은 스펜서가 바로 이러한 염려에 대해 모색한 문학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왕조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브리토마트/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왕의 결혼은 그녀의 군주로서의 통치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한 여왕은 군주로서의 통치권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왕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시 가정 내의 남편과 아내의 권력관계에 따라 여왕은 남편에게 사적으로는 종속되게 되는데, 이 점은 군주로서의 여왕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

7) 여왕이 독신을 선택하거나 고집한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분분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Doran 참조.

8) “Queen Elizabeth's Answer to the Lords' Petition that She Marry, April 10, 1563, Delivered by Lord Keeper Nicholas Bacon,” (Elizabeth 79): “Two petitions . . . contained in summ as of your cares the greatest: my marriage and my successor . . . though I can think it[marriage] best for a private woman, yet do I strive with myself to think it not meet for a prince.”

9) “Queen Elizabeth's First Speech before Parliament, February 10, 1559, version 2,”(Elizabeth 59): “. . . when the public charge of governing the kingdom came upon me, it seemed unto me an inconsiderate folly to draw upon myself the cares which might proceed of marriage. To conclude, I am already bound unto an husband, which is the kingdom of England, and that may suffice you.”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여왕과 결혼할 남성이면 유럽 어느 나라의 왕이거나 왕족 혹은 매우 높은 신분의 귀족이므로 여왕의 결혼은 통치권의 공유 문제, 혹은 통치권 양도 문제라고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점들은 엘리자베스의 언니 메리 여왕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메리는 사촌인 스페인의 필립 2세와 결혼하였는데, 영국 의회와 여왕의 측근들은 결혼 계약서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통해 필립이 영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패하였다(Constance 426-30; Doran 34; Levin 41-42; Warnicke 57). 메리 여왕은 남편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기를 원하였고, 가톨릭 신자이며 외국인인 필립 왕의 존재는 영국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메리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도 자신의 결혼이 불리일킬 수 있는 정치적 위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결혼으로 어찌면 (분명하게 기약할 수 없어도) 후사 문제에 대한 불안은 해소할 수 있었겠지만, 여왕의 통치권이 약화되고 불안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스펜서가 브리토마르에게 왕조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현실적으로 남편과 통치권의 공유 혹은 부분적 양도의 가능성을 이미 전제로 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브리토마르의 왕조적 소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레고리화된 곳이 바로 5권의 이시스 신전 에피소드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찬가인 『페어리 여왕』에서 스펜서는 브리토마르가 이시스로 변모하는 비전을 통해 브리토마르/엘리자베스의 역할들 중 결국 왕조 계승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군주의 권한을 남성에게 양도하고 여성 통치권이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시스는 이집트의 의롭고 진실한 왕이었으며 정의의 신으로 신격화된 오지리스의 아내인데, 그녀도 오지리스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힘과 주권을 가진 여신으로 신격화되어 정의의 한 측면(equity)을 상징한다(5.7.3).¹⁰⁾ 고대 이집트

10) 스펜서의 이시스와 오지리스에 대한 고전적 출전들은 플루타르크(Plutarch), 디오도루스(Diodorus), 아풀레이우스(Apuleius)의 저서들로 추정된다(Hamilton, note to

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두 사람은 전통적으로 각각 태양과 달로 비유되었는데, 스펜서도 이 두 인물을 태양과 달에 비유한다. 이들이 태양과 달에 비유된 이유는 이 두 행성들이 똑같이 하늘을 운행하듯이 정의의 힘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동등하기 때문이다(5.7.4). 정의의 덕이 특별히 군주의 덕(5.Proem.10)이고, 이시스와 오지리스라는 이름에 ‘왕권’, ‘왕좌’(throne)의 요소가 공통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Witt 36-37; Wilkinson 147), 스펜서가 이시스에게 오지리스와 동등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여성 통치를 이시스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시스 신화에서 그녀는 남편이 출타 중일 때 그리고 그가 죽어 명부의 왕이 된 후 여왕으로 이집트를 다스린다. 그녀의 통치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권력이라기보다는 메리 여왕과 결혼한 필립이 결혼을 통해 가지게 된 것과 유사하다. 왕의 배우자(consort)로서의 이시스의 여성 통치는 브리튼 왕국의 왕위계승자인 브리토마트가 아트걸과 결혼 후 하게 될 여성 통치와는 다르고 독신인 엘리자베스여왕의 통치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여왕과 결혼한 남성과 달리 현실적으로 결혼을 통해 여성이 정치권력을 가지거나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¹¹⁾ 정의의 전설의 중심에 부각된 이시스는 군주인 남편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했던 여성 통치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지리스의 신화는 “완전한 성적(性的) 결합과 완전한 모성”(Witt 18)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시스의 모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면은 여성 군주가 아니라 이상적인 아내요 어머니라는 점이다. 이시스는 모성을 가장 고귀한 형태로 신격화한 신화적 인물이요 동시에 결혼 전의 브리토마트에게

5.7.4; Macey 279-93),

11) 튜더 왕조 때 실제로 정사에 관여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이 없지는 않았다. 헨리 8세와 결혼한 아라곤의 캐서린(Catherine of Aragon)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녀는 헨리 8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정사에 관여하여 그녀보다 연하이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헨리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도왔지만, 그것은 헨리가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국한된다(Levine 116).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앤 불린(Ann Boleyn)이 어떤 여성보다 헨리 8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지만 정치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Levine 118).

결맞게 “위대한 처녀”(Witt 17)라는 칭호로도 찬양을 받았다. 이시스와 오지리스의 신화는 결혼생활에서의 정의, 특히 왕가에서 남편과 아내의 정의로운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이며 이시스는 왕가의 여성/아내의 알레고리적 인물이다. 이시스와 오지리스는 하늘의 여신 Nut와 땅의 신 Geb의 결합에 의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이미 두 사람은 사랑했다고 한다.¹²⁾ 오지리스는 이집트의 왕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신들을 흠숭하고 문화적으로 교화시키는 일들을 하였으며, 그가 부재중일 때에는 이시스가 이집트를 다스렸다(Plutarch 13; Diodorus 14, 17-21). 이들의 남동생인 셋(Setth)이¹³⁾ 음모를 꾸미고 오지리스를 죽이고 그 시체를 관에 넣어 나일 강에 던져버렸는데, 이시스는 페니키아 비블루스 지방까지 떠내려간 그 시체를 찾아내었다. 셋은 다시 이시스가 숨겨둔 오지리스의 시체를 토막 내어 나일 강에 던져 버리는데 이시스는 이 흩어진 토막들도 다시 모아 오지리스를 살려내고 오지리스는 명부의 신이 된다.

이렇게 이시스는 성실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아들 호루스(Horus)가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려 그를 도와 셋으로부터 남편의 왕권을 되찾는 다(Plutarch 13-27; Diodorus 21-26). 이렇게 이시스는 아내요 어머니로서 왕권 계승의 투쟁에서 주도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아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 왕권을 계승하도록 하고 이후 모든 파라오들의 상징적인 어머니, 왕조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으며 죽은 후에는 남편과 같이 신격화된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행해지던 이시스 숭배는 그리스 로마로 전파되어¹⁴⁾ 이시스

12) 이집트 신화에서 오지리스와 이시스의 부모는 Nut과 Geb이라고 불리지만, 이 신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넘어와 그 문화의 신들의 다양한 속성들이 이 두 신의 신화 속에 삽입되면서 그들의 부모도 다르게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플루타르크는 이들의 부모가 레아(Rhea)와 헤르메스(Hermes)라고 하였다(Plutarch 12).

13) 위에 언급한 출전에서서는 타이폰(Typhon)이라고도 부른다.

14)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시스는 여러 다른 여신들의 속성을 흡수하여, 데메테르(Demeter), 아테나(Athena) 아르테미스(Artemis) 등으로 불리었고 무엇보다도 신들의 어머니로 숭배되고 자연 속의 생명력과 동일시되었다(Witt, chapter 10). Witt는 어머니와 아들간의 관계를 부각시킨 이시스 숭배의 흔적이 그리스 로마세계를 거쳐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까지 흘러내려왔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리스도교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관계는 이시스와 호루스의 관계와 신학적으로 도상학(圖像學)적으로 유

는 인간의 생명 보존과 직결된 농업의 여신, 문명의 법을 주는 여신으로 숭배되었다.¹⁵⁾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녀는 여성 군주로서보다는 무엇보다도 충실한 아내요 가정의 수호자이며, 배우자의 전형으로(Witt 41) 존경을 받았고, 인간 사회를 넘어서 자연과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¹⁶⁾ 이시스는 생명의 원천이며 “자연의 여성적 원리”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다정한 유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Plutarch 53).

이러한 신화적 함축들을 볼 때, 이집트 왕조의 어머니요 모성을 가장 두드러진 속성으로 가진 이시스 여신은 스펜서가 브리토마트의 왕조의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표상할 가장 좋은 알레고리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미래의 남편을 구하러 가는 도중 이시스 신전에 머물게 된 브리토마트가 신전에서 보는 이시스 여신상은 곧이어 그녀가 꿈속에서 변모하게 될 모습이며, 아트걸과의 미래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점들을 예견하게 한다.

그녀는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신적인 일들에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네;
그리고 발치에는 악어 한 마리 꼬리를 들고,
꼬리로 그녀의 허리를 칭칭 감고 있네.

사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Witt, chapter 19).

- 15) 이는 이집트 여성들에 의해 농경지식이 그리스로 전해졌다는 헤로도투스의 서술을 신화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Keller 43).
- 16) 이시스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다시 쓰일 때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녀가 이집트에서 누렸던 여성 군주로서의 위상, 즉 남성적인 역할은 축소된 듯하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성이 주로 부각된 듯하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 신화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면서 여신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여신/여성이 아닌 남성신/남성의 지배를 받는 세계를 반영하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서양 신화에 반영된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부장적 세계 속에서의 여신의 역할 축소 혹은 억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Mara Lynn Keller, “The Eleusinian Mysteries: Ancient Nature Religion of Demeter and Persephone,” 41-51, Irene Diamond and Gloria Feman Orenstein, eds.,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a Club, 1990 참조.

그녀의 한 발은 악어위에,
그리고 다른 발은 땅에 굳건히 서있네,
날조된 책략과 거침없는 폭력을
억압할 작정으로:

Vppon her head she wore a Crowne of gold,
To shew that she had powre in things diuine;
And at her feete a Crocodile was rold,
That with her wreathed taile her middle did enfold.

One foote was set vppon the Crocodile,
And on the ground the other fast did stand,
So meaning to suppresse both forged guile,
And open force: (5.7.6-7)

이시스와 오지리스의 관계에서 오지리스는 악어로 알레고리화되어 있는데 이 알레고리화는 오지리스라는 인물을 “현란할 정도로 복잡하게”(Aptekar 87)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인 동시에 실제로는 그의 역할이나 힘을 현저히 축소시키기도 한다. 이시스의 한쪽 발은 악어위에 놓여있고 다른 한 발은 땅에 굳건히 서있다. 이 모습은 알레고리적으로 속임수와 공공연한 무력행위를 그리고 오지리스를 이시스 여신이 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들은 아트걸이(오지리스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정치적 술수와 힘으로 정의의 덕에 필요악처럼 내재된 요소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시스 여신이 제압하는 남성적 악어가 여성형 “her”(5.7.6.9)로 지칭되고 있는 점이다. 악어는 결코 이시스 여신을 파괴하려 드는 모습이 아니라 꼬리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이시스와 악어는 일체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성실한 아내요 어머니이며 남편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생산력과 같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힘으로 알레고리화된 이시스 여신이 제압하는 것은 이시스 여신 자신처럼 정치권력을 행사하거나 권

력 투쟁에서 아들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할 만한 여성들이 휘두를 수 있는 속임수나 폭력화될 수 있는 정치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펜서는 라디군드가 기사들을 제압할 때 바로 이러한 힘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5. Argument), 그렇다면 악어는 라디군드 같이 (그리고 브리토마트에게도 해당되는데) 남성과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아마존 여성들이 휘두르는 폭력적인 정치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군드와 브리토마트의 대결을 브리토마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아와 분신의 싸움(psychomachia)으로 본다면(Bowman, 519), 유비적으로 이시스와 악어의 관계 또한 자아와 분신의 관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악어를 제압하는 이시스는 남성의 폭력적인 지배욕뿐 아니라 남성과 경쟁하거나 대적하는 여성 자신의 힘을 제압한 여성성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러한 여성성은 남편과 아내의 현실적인 결혼 관계에서 남편에게 순종적인 에라스무스적인 현명한 “착한 여자”(bona mulier)에게 매우 필요한 속성이다(Davies, 26).¹⁷⁾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확립되고 그에 따라 여신의 역할도 축소 혹은 억압되었고, 이시스 여신의 군주로서의 모습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왕관을 쓰고 불의의 힘을 통제하는 이시스 여신의 모습은 스펜서의 이시스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억압된 이시스 여신의 군주로서의 역할을 되살려내는데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 허나 그녀의 힘이 실제적인 정치력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도덕적인 우월감 혹은 영적 지배력을 알레고리화라고 본다면 그녀에게서 여성 군주로서의 역할과 같은 현실적인 정치력은 오히려 축소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현실 정치력을 약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브리토마트와 이시스의 결합은 여왕에 대한 스펜서의 충성심의 표현일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페트라르카식 연애시의 연인 그리고 백성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마리아에 필

17) 에라스무스(Erasmus)와 튜더 교육이론가들은 착한 아내는 남편에게 영리하게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우월성을 통해 남편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avies 참조). 로웨나 데이비스(Rowena Davies)는 악어를 제압하는 이시스 여신은 바로 이런 에라스무스적인 지혜를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적히는 프로테스탄트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군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그녀의 노력들은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성적인 측면들 (sexuality)에 대한 교묘한 풍자와 험담들의 시달림을 받아야했다(Levin, "Images of Elizabeth I"). 그러한 악성루머로부터 나름대로 여왕을 변호하려는 스펜서의 여왕에 대한 충성심이 브리토마르트와 이시스가 결합된 여왕의 이미지 속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시스 여신의 제단 옆에서 투구를 벗고 잠이 든 브리토마르트는 이시스 여신과 악어를 자신의 꿈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녀가 보니, 자신이 사제들처럼
 제관을 쓰고 아마(亞麻) 걸옷을 걸치고
 제물을 바치고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아마옷이 진홍색 예복으로,
 달 모양의 제관이 황금관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네,
 그런 변화에 그녀 자신도 매우 놀라며
 갖가지 보석과 장신구로 꾸민 자신을
 보며 기뻐했네.

Her seem'd, as she was doing sacrifice
 To Isis, deckt with Mitre on her hed,
 And linnen stole after those Priestes guise,
 All sodainely she saw transfigured
 Her linnen stole to robe of scarlet red,
 And Moone-like Mitre to a Crowne of gold,
 That euen she her selfe much wondered
 At such a chaunge, and ioyed to behold
 Her selfe, adorn'd with gems and iewels manifold. (5.7.13)

브리토마르트는 꿈속에서 이시스 여신을 섬기는 사제복장을 하고 있던 자신이 황

금관을 쓴 이시스 여신으로 변모하는 것을 본다. 브리토마트는 브리튼 왕국의 왕위 계승자로 왕국을 통치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는데 이 꿈 속에서 그 운명이 실현됨을 보는 것이다. 윌리엄 넬슨(William Nelson)은 황금관을 군주의 왕관으로 해석하지만(Nelson 124), 브리토마트 앞에 나타난 이시스 여신은 여성 군주라기보다는, 데이비드 메이시(J. David Macey, Jr.)의 주장대로(Macey 279-93), 아풀레이우스가 묘사하는 어머니 이시스를 더 강하게 연상시킨다. 브리토마트가 변모한 이시스 여신은 만물의 어머니로 한없는 부드러움과 다정함 속에 루시우스(Lucius)에게 자신을 현시하며 그를 영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재생하게 하는 이시스에 더 가깝다(Apuleius 5). 브리토마트는 이러한 이시스로 변모함으로써 아마존 전사와 같은 군주에서 어머니와 아내로 변모하고 있고, 황금관을 쓴 이시스는 그녀에게서 아마존 전사와 같이 강력한 여성 통치 군주로서의 모습을 약화시킨다.

브리토마트의 통치 군주로서의 정치적 세력의 약화는 그녀가 꿈에서 신화적 변모를 겪은 후 곧 무서운 폭풍우와 함께 일어난 불길의 위협을 받는 장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레고리화된다(14). 이시스 여신의 발치에 있던 악어는 곧 그 불길과 폭풍우를 집어 삼키고 자신의 힘에 대한 자만에 가득 차 브리토마트도 삼킬 듯이 위협한다(15). 이시스 여신의 발치에 있는 악어와 비교할 때 이 악어는 남성형인 “he”로 지칭되어 있다. 브리토마트가 여성이고 악어가 남성이라는 점은 둘의 성의 대결구도를 피할 수 없으며, 또 이성간의 대결이라는 점은 둘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힘 외에도 사랑의 힘의 역학이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된다. 이 악어는 곧 여신의 지팡이에¹⁸⁾ 제압당하여 겸손하고 유순하게 자신을

18) “Goddesse”가 지팡이로 악어를 유순하게 만드는데(5.7.15.9), 여기서 여신이 브리토마트인지 이시스인지 분명하지 않다. 브리토마트가 이시스로 변모하여 여신처럼 황금관을 쓰고 있지만 여신처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브리토마트가 이시스로 변모하였지만 여신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고 브리토마트가 여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악어에 의해 삼켜질 위험에 처한 브리토마트를 구해 이시스 여신이 자신의 지팡이로 악어를 제압했다는 해석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문제는 이시스가 악어를 제압하듯이 브리토마트가 악어, 즉 아트걸을 제압한다는 이야기가 성립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낮추어 브리토마르에게 구애하기 시작하고 그 구애를 받아들여 브리토마르는 임신하여 사자를 낳는다(16).

신전 사제는 브리토마르의 당혹스러운 꿈을 왕조적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인 악어는 이시스 여신의 발치에 있던 악어, 즉 오지리스와 같이 의롭고 충실한 연인 아트걸이라고 브리토마르에게 알려준다. 그가 이시스 여신으로 변모한 브리토마르에게 제압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데 있어 관용이 정의의 지나친 잔혹함과 엄격함을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 그 의미 외에도 이 장면은 두 사람의 보다 사적인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아트걸은 남장한 브리토마르와 싸우다가 싸움 중에 드러난 그녀의 모습에 반하여 그만 그녀에게 제압당한 적이 있는데(Book 4, canto 6) 그러한 대결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브리토마르의 꿈은 그들의 사랑의 결합이 브리토마르에게서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군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녀가 생산적인 여성성이 흘러넘치는 아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할 때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트걸과 브리토마르의 결혼 과정을 살펴보면 아트걸이 브리토마르의 정적들을 제압하는 정치적 공적은 두 사람의 결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기사는 당신이 아버지의 왕권과 사랑하는 왕국을
 정당하게 계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많은 적들이 일으킨 모든 혼란스런 폭풍우와
 타오르는 불길들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배우자로 맞이하여,
 하나가 되어 당신 왕국의 동등한 몫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당신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어
 사자를 닮은 그 아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은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께 꿈의 기쁨을 주십니다.

서 “여신”은 브리토마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at Knight shall all the troublous stormes asswage,
 And raging flames, that many foes shall reare,
 To hinder thee from the iust heritage
 Of thy sires Crowne, and from thy cuntry deare.
 Then shalt thou take him to thy loued fere,
 And ioyne in equall portion of thy realme:
 And afterwards a sonne to him shalt beare,
 That Lion-like shall shew his powre extreme.
 So blesse thee God, and giue thee ioyance of thy dreame. (5.7.23)

브리토마트가 꿈 속에서는 군주로서 그녀는 자신의 왕권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정치적 능력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적인 매력으로 아트걸을 제압하며, 정치 현실에서는 수동적으로 아트걸의 보호를 받게 된다. 브리토마트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자 정적들의 위협은 거세지고, 5권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전사로서 온갖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구한 그녀의 모습은 약화되고 아트걸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정치적 공적을 쌓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진 악어가 브리토마트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트걸의 정치적 세력이 왕위 계승자인 브리토마트를 위협할 정도로 강하게 됨을 암시한다. 아트걸의 정치적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브리토마트의 결혼의 비전은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으로 설정되어있지만 그 사랑은 정치권력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결혼이 특히 왕가의 결혼에서 결혼 당사자들 간의 사랑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결혼에서 정치적 힘의 역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트걸은 결혼하여 왕국의 “동등한 몫(분배)”을, 즉 브리튼 왕국을 동등하게 통치할 실제권력을 가지게 된다. 아트걸은 콘월 왕 캐도어(Cador)의 형제로서(3.3.26-27)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어리가 어린 그를 훔쳐내어 페어리 나라에서 키워진 기사인데, 브리토마트와의 결혼을 통해 필립 왕처럼 왕의 직함(regal title)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 브리토마트의 꿈에서 그녀를 위협할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아트걸이 결혼을 통해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기회를 얻게 되면 권력의 추가 아트걸에게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메리 여왕이 스페인의 펠립 왕과 결혼함으로써 그녀가 여왕이었지만 그녀의 측근들이 그녀와 결혼한 펠립을 실제 통치자로 본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이시스가 오지리스를 통해 정치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결혼을 통해 브리토마트는 자신의 왕조를 이어나가게 할 아들을 얻게 된다. “그에게 아들을 낳아 준다”(7)는 표현은 브리토마트가 아니라 마치 아트걸이 군주이며, 브리토마트는 군주에서 그의 후계자를 낳아주는 아내로 역할이 규정된 듯한 인상까지 풍긴다.

꿈에서 깨어난 후 브리토마트는 다시 아마존 여전사와 같은 용맹을 발휘하여 라디군드를 처치하고 아트걸을 구해내지만 그 남성적 용맹함은 꿈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한 것이다. 브리토마트는 브리튼 왕국의 왕위계승자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페어리 나라에서 그녀는 미래의 남편을 찾아 헤매는 남장한 기사일 뿐이며 실제로 왕국을 통치한 적은 없다. 브리토마트가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라디군드를 처치한 후 아마존 왕국을 다스릴 때이다. 브리토마트가 어머니요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변모된 비전 후 그녀의 현실정치에 대한 예화가 등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 그곳에 잠시 머물렀네,
그는 기운을 차리고, 그녀는 최근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동안 그녀는 여성군주로 그곳을 다스리며,
그 국가의 통치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여성들이 오랜 시간 불법 행사한
자유를 철폐하였네; 그리고 여성들을
남성 종속의 원상태로 되돌려 진정한 정의를 이루었네.
그리하여 사람들 모두 그녀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그녀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녀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네.

So there a while they afterwards remained,

Him to refresh, and her late wounds to heale:
 During which space she there as Princess rained,
 And changing all that forme of common weale,
 The liberty of women did repeale,
 Which they had long vsurpt; and them restoring
 To mens subiection, did true Iustice deale:
 That all they as a Goddesse her adoring,
 Her wisdome did admire, and hearkned to her loring. (5.7.42)

이시스는 오지리스가 셋에 의해 토막 내져 나일 강에 뿌려졌을 때 고기들에게 삼켜진 남근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 남근의 복제품을 만들어 남편을 다시 조합하여 세우는데, 이와 유사하게 브리토마트는 아마존 왕국에서 남성의 권력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다. 여왕으로서 브리토마트는 여왕이 되어 여성 통치권을 폐지하고 남녀 간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회복시키며, 모든 남성 신하들을 여왕인 자신이 아니라 아트걸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다(43). 그녀의 이러한 정치권력의 양도는 곧 결혼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예시하는데, 이시스 여신의 신화적 역할에서 암시되듯이 결혼 후 브리토마트는 여성 군주(queen regnant)라기보다는 남성 군주의 배우자(queen consort)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¹⁹⁾ 브리토마트의 통치행위는 바로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찬양받고 있는데, 이 정의구현을 통해 그녀는 꿈속에서처럼 현실에서 이시스와 같은 여신으로 추앙받게 된다. 브리토마트는 현실정치권을 내어 놓는 대신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아트걸을 지배하는 “착한 여자”로 변모된 것이다. 그녀가 라디군트를 처치하고 여장을 한 채 감혀있는 아트걸을 만났을 때 스펜서는 그녀를 서양문학에서 정숙하

19) 이 에피소드에서 여성 통치에서 남성 통치로의 정치적 젠더의 변화에 대해 캐서린 이거트(Katherine Eggert)는 정치적 젠더의 전환은 장르상의 전환, 즉 여성적이고 환상적인 아리오스토적 로맨스에서 역사적 알레고리라는 보다 남성적 형태로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Eggert 259-90). 칸토 7 이후 5권은 역사적 알레고리들로 가득 차있음을 주목할 때 젠더와 정치 그리고 장르의 관계에 대한 이거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고 성실한 아내의 대명사인 페넬로페에 비유하는데(5.7.39), 이 비유 또한 그녀의 군주로서의 역할 보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또 다른 좋은 예이다. 브리토마트가 페넬로페가 됨으로써 여전사에게 패배하여 여장을 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있던 아트걸은 갑자기 영웅 오디세우스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군주로서의 통치권은 아트걸에게 교묘하게 이양되고, 브리토마트는 왕조의 어머니요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되어 여신으로 숭배되며 이후 페어리의 나라에서 그 모습을 감춘다.

브리토마트는 남장한 여기사로서 아마존 여성과 같은 무용을 발휘하는 모습 속에서 스펜서가 여성군주인 엘리자베스를 찬양하고 여성 통치를 옹호하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시인이 이시스 신화와 브리토마트의 변모를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또 하나의 숭배(cult)를 만들어 내어 여성 통치를 옹호한 듯해도, 실제로 그는 여성군주의 역할 중 어머니로서의 역할, 남성의 권력을 세우는 역할을 더 강조하고 영국의 안정을 위해 궁극적으로 여성 통치의 폐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스펜서는 스페인의 필립과 같이 가톨릭신자요 외국인인 여왕의 배우자로 받아들여기를 원하지 않는 영국민의 정서에서 아트걸과 같은 콘월출신 귀족기사를 브리토마트의 배우자로 설정함으로써 여왕의 외국인 남편이 영국정사에 관여하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피해간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동등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처녀 여왕의 여성 통치에 의해 야기된 불안과 두려움을 남성 군주의 구세주와 같은 모습을 통해 종식시키고 왕의 전통을 되찾고 싶은 갈망을 은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브리토마트의 가장 중요한 서사적 목적은 왕조의 어머니라는 점은 브리토마트에 대한 찬양의 도입부부터 명백히 드러나 있었으며, 그 점을 숙지할 때 스펜서가 5권에서 여성 통치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자주 지적하듯이 모순

20) 엘리자베스 여왕 재위 중 특히 1580년대와 1590년대에 여왕의 숨겨둔 자녀들과 같은 여왕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과 죽은 에드워드 6세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왕위 요구자들이 등장한 것들도 후사가 없는 처녀 여성 군주의 통치에 대한 영국민들의 불안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튜더 왕조 때 여성 통치와 관련된 불안에 대해 Levin 참조.

된 것이 아닌 듯하다. 스펜서가 브리토마트 스스로 여성 통치를 폐지하도록 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장 치명적인 핸디캡이었던 점, 즉 후계자를 생산하지 못한 점과 여성 통치를 연관시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어리 여왕』의 5권이 출판된 1596년경에는 이미 60대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다가오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예견으로 인해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는 영국의 전망은 참으로 불안하고 암울하였다. 스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왕권 계승자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여성 통치가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브리토마트의 신화적 변용을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현실적으로 택했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에드먼드 스펜서, 『페어리 여왕』, 정의, 브리토마트, 엘리자베스 1세, 이시스, 오지리스, 여성 통치.

Works Cited

- Aptekar, Jane. *Icons of Justice: Iconography and Thematic Images in Book V of The Faerie Queene*. New York: Columbia UP, 1969.
- Apuleius. *Metamorphoses II*. Ed. and trans. J. Arthur Hanson. Cambridge: Harvard UP, 1989.
-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Trans. John Henry Freese. Cambridge: Harvard UP, 1991.
- Davies, Rowena. "Britomart as 'Bona Mulier': Erasmian Influence Upon the Icon of Isis." *Notes and Queries* 32(March 1985): 25-26.

- Diodorus of Sicily. *The Library of History of Books I-II*. 34. C. H. Oldfather, tr. Cambridge: Harvard UP, 1933.
- Doran, Susan. "Why Did Elizabeth Not Marry?" In *Dissing Elizabeth: Negative Representations of Gloriana*. Ed. Julia M. Walker. Durham: Duke UP, 1998. 30-59.
- Eggert, Katherine. "'Changing all that forme of common weale'": Genre and the Repeal of queenship in *The Faerie Queene*, Book 5."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26(1996): 259-90.
- Elizabeth. *Elizabeth I: Collected Works*. Ed. Leah S. Marcus, Janel Mueller, and Mary Beth Rose. Chicago: U of Chicago P, 2000.
- Hamilton, A. C. ed. *Spenser: The Faerie Queene*. London: Longman, 1977.
- _____. gen. ed. *The Spenser Encyclopedia*. Toronto: U of Toronto P, 1990.
- _____, ed. *Spenser: The Faerie Queene*. London: Pearson Education, 2001.
- Hieatt, A. Kent. *Chaucer, Spenser, Milton: Mythopoeic Continuities and Transformations*. London: McGill-Queen's UP, 1975.
- Jordan, Constance. "Woman's Rule in Sixteenth-Century British Political Thought." *Renaissance Quarterly* 40(1987): 421-51.
- Keller Mara Lynn. "The Eleusinian Mysteries: Ancient Nature Religion of Demeter and Persephone." In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Ed. Irene Diamond and Gloria Feman Orenstein. San Francisco: Siera Club, 1990. 41-51.
- Levin, Carole. "Queens and Claimants: Political Insecurity in Sixteenth-Century." In *Gender, Ideology, and Action: Historical Perspectives on Women's Public Lives*. Ed. Janet Sharistianian. New York: Greenwood, 1986. 41-66.
- _____. "Power, Politics, and Sexuality: Images of Elizabeth I." In *The Politics of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Ed. Jean R. Brink, Allison P. Coudert

- and Maryanne C. Horowitz.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9. 95-110.
- Levine, Mortimer. "The place of women in Tudor government." *Tudor Rule and Revolution: Essays for G. R. Elton from His American Friends*. Ed. G. R. Elton, DeLloyd J. Guth, and John W. Mckenna. Cambridge: Cambridge UP, 1982. 109-123.
- Lewis, C. S. *Allegory of Love*. Oxford: Oxford UP, 1936.
- Macey, J. David, Jr. "'Fowle Idolatree' and Fair: Apuleius and the Idol of Isis Church."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36(1999): 279-93.
- Nelson, William. "The Legend of Justice: The Idol and the Crocodile." *Spens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Harry Berger, J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15-31.
- Plutarch. *Moralia V*. Trans. Frank Cole Babbitt. Cambridge: Harvard UP, 1936.
- Roberts, Josephine. "Radigund Revisited: Perspectives on Women Rulers in Lady Mary Wroth's *Urania*." *The Renaissance Woman in Print: Counterbalancing the Canon*. Ed. Anne M. Haselkorn and Betty S. Travitsky.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90. 187-207.
- Schleiner, Winfried. "Divina virago: Queen Elizabeth as an Amazon." *Studies in Philology* 75(1978): 163-180.
- Stump, Donald. "A Slow Return to Eden: Spenser on Women's Rule."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29(1999): 401-21.
- _____. "Isis Versus Mercilla: The Allegorical Shrines in Spenser's Legend of Justice." *Spenser Studies* 3(1982): 87-98.
- Villeponteaux, Mary. "'Not as women wonted be': Spenser's Amazon Queen." *Dissing Elizabeth: Negative Representations of Gloriana*. Ed. Julia M. Walker. Durham: Duke UP, 1998. 209-25.
- Witt, R. E. *Isis in the Ancient Worl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1.

- Woods, Susanne. "Spenser and the Problem of Women's Rule."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48(1985): 140-158.
- _____. "Amazonian Tyranny: Spenser's Radigund and Diachronic Mimesis." *Playing with Gender: a Renaissance Pursuit*. Ed. J. R. Brink. Urbana: U of Illinois P, 1991. 52-61.

Isis in Book 5 of *The Faerie Queen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Britomart's Transfiguration

Abstract

Jin-Ah Lee

Britomart's repeal of the female rule in Radigund's amazonian kingdom, probabl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episodes in Book 5 of *The Faerie Queene*, happens right after her transformation into Isis in her dream vision of marriage in the Temple of Isis. Her action seems to be quite contradictory to her images as a queen regnant-to-be. From a contextual point of view, the figure of Isis seems to be cruci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llegorical inscrutability of Britomart's action. This paper explor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myth of Isis and their relations with Britomart's repealing of female rule. It also aims to illuminate how Spenser's concerns with the issue of Elizabeth 1's marriage are engaged in Britomart's transfiguration into Isis and her vision of marriage.

The two queens regnants, Mary and Elizabeth 1 in early modern England respectively posed urgent political problems: the problem of the authority of a married queen regnant to her husband, her social and political superior, in the case of Mary whose husband tried to gain control over the internal and diplomatic affairs of the realm, and the problem of the dynasty without an heir in the case of the virgin queen Elizabeth. Spenser seemed to find a role model of female ruler in the figure of Isis in his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of female rule.

Isis was established in the Egyptian and the Greco-Roman myths as the loving and faithful consort and the dynastic mother. She resuscitated the dead

Osiris who was killed by his brother Setth in their power struggles, helped her son Horus to regain the kingship from his uncle, and so was worshipped as the dynastic mother of all the pharaohs in Egypt. She also ruled Egypt on behalf of her husband, when Osiris was away from his country. In Spenser's representation of Isis, she shares the power of justice with Osiris and suppresses the violent aspects of his power. However, she reveals herself more prominently as the loving and all-embracing mother and the faithful spouse than female ruler.

Britomart's identification with Isis as wife and mother has the effect of reducing her role of a queen regnant, suggesting that her regal power could be considerably transferred to her consort Artegall after their marriage. Her repeal of female rule and her making all the Radigund's magistrates subject to Artegall strongly imply her future uxorial subjection to Artegall, and anticipate her share of the regal power with her husband, which Elizabeth 1 would never have had hoped. Britomart's roles as the ancestral mother of the Tudor dynasty and more a queen consort like Isis than a queen regnant seem to be the ones that Spenser expected the queen should have chosen for the future of England.

Key words

Edmund Spenser, *The Faerie Queene*, justice, Britomart, Elizabeth 1, Isis, Osiris, female rule.